

# 지배문화 너머 새로운 의미체계 찾는 문명전환운동

대안문화운동, 무엇이 이야기되고 있는가

정수복 |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대안문화운동은 지배적인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개인의 삶의 욕구와 의미를 중요시하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문명전환운동의 의미를 지닌다. 대안문화운동이 좀더 넓은 차원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대안문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지배적 삶의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을 말한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은 지속돼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구분돼야 한다” “학교는 꼭 다녀야 한다” “성적인 애정의 교환은 이 공간에만 이뤄져야 한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경제성장보다 자연 속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남녀간의 역할구분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학교 밖에서도 교육은 가능하다” “동성애자들간에도 성적인 애정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대안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대안문화운동’은 기존의 사회체제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단순히 기존 삶의 양식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몸부림을 일탈행동이라고 한다면, 옛 삶의 양식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움직임은 대안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문화운동에 참여한 두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 혹독하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의 대열에서 탈락해 자신에 대해 회의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사회, 살아남은 사람들은 끝없이 자신을 경쟁의 대열에서 체찍질하며 자신을 죽여가는 사회, 사람다운 삶의 근거가 새로운 욕망, 무한한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는 생각없는 사람들의 사회를 벗어나 사람다운 삶의 새로운 모습을 작게나마 만들어보고 싶다.”

“더 똑똑해지고 싶었고, 좋은 차, 넓은 집의 사람이 부러웠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당연히 바쁘게 살았다. 그것이 유

일한 최선이였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또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조금만 욕심을 줄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임을 알게 됐다. 반드시 남보다 앞서 가지 않아도 됐고, 덜 가져도 불안하지 않고 편해지기 시작했으며, 요란하지 않게 단순 소박하게 살고 싶어졌다.”

## 기존 사회체제의 근본가정 부정

대안문화운동은 초기단계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기존의 문화 밖에서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하위문화로 출발한다. 그러나 대안문화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면 이제는 기존의 문화를 비판하고 거부하며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나오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기존의 문화와 대안문화 사이의 갈등과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문화운동은 문화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차원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운동’에 이어서 ‘대안문화운동’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운동이 민주화된 체제 안에서 더 많은 참여 민주주의와 올바른 공공정책의 형성을 지향한다면, 대안문화운동은 정치적인 차원보다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대안문화운동은 기존의 사회체제를 떠받드는 근본가정 자체를 흔들어놓으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운동이나 여성운동이 다 대안문화운동은 아니다. 기존의 체제 내에서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하는 환경운동이나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장하는 여성운동은 대안문화운동이라기보다는 시민운동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거부하고 생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벌이거나 노동직거래운동, 지역통화운동 등을 통해 비시장적 대안경제를 만들려는 노력은 대안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운동이 가부장제를 거부하며 보살핌과 나눔의 문화를 모든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누며 파괴된 자연을 살리려는 운동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대안문화운동이 될 것이다. 또 학교운동도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이 시민운동이라면 학교를 거부하는 탈학교운동·대안학교운동·가정학교운동 등은 대안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대우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 시민운동이지만 그것이



시민운동이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대안문화운동과 결합할 때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사진은 NGO 세계대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 장면.

부모와 자식으로 이뤄지는 기존의 가족제도를 거부하고 다양한 가족제도의 공존을 주장한다면 대안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의 삶의 욕구와 의미 중시

대안문화운동의 의미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따져볼 수 있다. 첫째, 대안문화운동은 사회체제가 순조롭게 작동하기 위해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보다는 개개인의 삶의 욕구와 의미를 중요시한다. 진정 자기가 원하는 가슴 뛰는 삶을 살려는 주체적 삶의 의지를 표명한다. 더 많은 소유와 소비가 더 큰 행복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덜 소유하고 덜 소비하지만 더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대안문화운동의 기반이다. 그래서 일류대학에 진학해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남과 어울려 자연 속에 사는 삶의 양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남성이기 이전에 또 여성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가치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안문화운동은 인간의 자연착취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에 기반하는 산업사회적 삶의 양식을 거부하는 반체제운동이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문명전환운동의 의미를 지닌다. 모든 것을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작은 단위로의 분권화를 주장하면서 지역을 재발견하고 수직적이고 서열적인 인간관계를 거부하고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며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다양한 기준이 작용하는 다양성의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생태공동체운동, 유기농산물의 도농직거래운동, 귀농운동, 지역화폐운동, 대안교육운동, 생태여성주의운동, 동성애자운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운동은 기존의 시민운동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는 언론매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그 실체가 현실보다 크게 과장되는 점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들의 주장이 널리 확산되는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문제는 대안문화운동이 초기 소수자들의 하위문화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지배문화에 도전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인가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운동과 대안문화운동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 시민운동과 대안운동과의 연대 필요

사회적 영향력의 수준에서 보건대, 시민운동이

대안문화운동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이 틀림없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체계의 면에서는 대안문화운동이 시민운동보다 훨씬 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부정부패추방, 경제정의실현 등의 의미체계는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다운 진정한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대안문화운동은 한번 시작하면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개종의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이 정치체제의 민주화 차원과 더불어 대안문화운동의 차원을 갖게 될 때 그 의미와 영향력의 차원이 더 확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삶의 의미세계까지 파고들어가지 못하는 메마른 의미체계로는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운동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은 되기 어렵다. 시민운동이 진정한 삶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안문화운동의 차원과 결합할 때 그것은 한국적 맥락을 넘어서 지구촌 수준에서 영향력 있는 대안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한편, 대안문화운동은 소수 사람들만의 자족적인 운동이 되기 쉽다. 대안문화운동은 경쟁에서 탈락한 패배자들의 운동이 아니다. 대안문화운동이 지배문화에 도전하는 좀더 넓은 사회적 차원의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이익을 넘어서 공공선을 위해 생각하고 움직이는 시민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차원의 시민운동과 문화적 차원의 대안문화운동이 합쳐짐으로써 광범위한 행위의 주체가 좀더 깊은 의미체계에 뿌리내린 사회문화운동의 물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메마른 일상의 삶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지배문화를 넘어서 대안문화를 추구하는 거시적인 문명전환운동의 일환이 될 것이다.●